

與 “7월 임시회서 입법·청문회 속도… 尹, 감옥으로 돌아가야”

김병기 “윤석열,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 진성준 “尹 거부법안 처리는 민생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을 처리하고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내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징적인 파란색 자켓을 챙겨 입고 오셔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에 뜻을 모아주셨다”며 “곧바로 민생공통협약추진위원회 가동을 위한 실무회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시작됐다. 이번주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며 “새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이고 통큰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란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하수관 점검 중이던 노동자 두분이 실종됐고 한분은 사망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하공간 밀폐구역 등

고위험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하작업장 전수조사, 위험평가 제도개선, 하청·재하청 구조 해소 등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일터의 죽음을 멈추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이번 방송법이 공영방송 중심이다보니 민영방송

등 지역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들 방송에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을 조속히 추가 입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민석 총리, ‘취임 30일 계획’ 공개…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첫 30일 업무계획 ‘10*3 플랜’(10일 3차례 계획) 보고’를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우선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규정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 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며 “상당기간 조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김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인 ‘K(케이)-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대통령실 언론브리핑 생중계

“30일간李 정부 성공 기초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
사회적 대화플랫폼 ‘K-토론나라’·세종 집중근무 주간 운영

방식을 차용해 대국민 소통 폭을 넓혀겠다는 방침이다.

또 “무능한 폭군 정치의 상처를 공식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식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정착하고 포상에 공식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소통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이듯, 공부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최상의 행정이라 믿는다”고 했다.

총리가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정책 기초에 힘을 싣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별 의견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일 단위로 세운 ‘취임 30일’ 업무 계획도 설명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힘, ‘안철수 사퇴’ 논란… “자기 이익 추구가 혼란 조장” “인적쇄신부터 시작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혁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끄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 전까지 인선 작업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최형두 의원과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혁신위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전날 사퇴를 선언한 안 의원과 송경택 서울시의원 등의 빈 자리를 메우고, 추가 인선까지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저희가 생각했던 혁신의 동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흐름을 이어 나가겠다”며 “원내외의 구분 없이 혁신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사퇴 논란에 사과… 10일 비대위 전까지 인선 속도 권영세·권성동, 안에 역공도… “비열한 행태” “혼란 조장” 안철수 “인적 쇄신부터 시작… 사과할 분 있지 않겠나”

했다.

앞서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당 지도부에 인적 쇄신안을 제시했지만, 송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 논란을 일으킨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지도부를 비롯한 구(舊)주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인적 쇄신을 포함해 모두 다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비대위원 또는 다음 당대표에게 전달해서 이게 현실화되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싶다”며 “느닷없이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를 해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세의

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인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권성동 의원도 안 의원을 겨냥해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8월 중순께 열리는 전당대회를 목표로 당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표가 되면 인적 쇄신부터 할 것 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최소한의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 백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할 분이 있고, 징계를 받을 분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i-ONE Bank 하나
기업 하나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식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